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2002년도 표어 ☉

성령이여 교통케 하소서 (고후13:13)

☉ 행동지침 ☉

- 1. 내실있는 교회 되어 바른 신앙, 바른 신학, 바른생활을 실천한다.
- 2. 성숙한 교회 되어 이웃과 세계교회를 섬기며 화평과 연합을 도모한다.
- 3. 책임있는 교회 되어 지역사회와 민족 앞에 소금과 빛의 사명을 다한다.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 (02)558-1106 팩스: (02) 558-2107 www. seoulchurch.or.kr

##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교재로-

# 사명자 특별새벽기도회 시작된다

### 11월11일(월) 새벽 5시30분 교회에서 만남시다

지난 10월6일부터 시작된 사명자 대회가 2주일의 여정을 남기고 있는 지금 교회는 사명자 특별 새벽기도회를 시작한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책임을 받은 자로 감당하여 야할 막중한 사명이 있다. 그러나 이 사명은 기도가 없는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 될 수 밖에 없다. 또한 말씀에 있는대로 성도의 행할 바는 오로지 기도뿐임을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기도를 멀리하고 있는 나약한 모습이 우리의 실정이다. 이런 우리의 나약함을 깨치고 받은 사명 오히려 감당키 위해 사명자 특별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는 것이다. 사명자 특별 새벽기도회는 23일(토)까지 2주간 계속되며 5시 30분에 2층 본당에서 갖게된다.

또한 특별새벽기도회 기간 중에는 이종운 목사가 매일 새벽 강단을 지키며 지난 2002 홍해작전때 공부하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계속하여 공부하게 된다. 교회는 많은 성도들이 받은 사명 오히려 감당토록 새벽을 밝히며 열심히 기도하고 진리에 대한 지식을 공부하는 사명자 특별새벽기도회가 되도록 노력한다.

## 남선교회 연합 총회 갖는다

### 11월16일(토) 오후 6시 8층 만나 홀

우리교회의 7개 남선교회는 11월 총회 기간을 맞아 연합하여 선교회간에 친교하며 화목하는 아름다운 시간을 갖기로 정해 각 선교회별 총회일정을 취소하고 오는 11월16일 교회에서 연합하여 총회를 갖기로 하였다.

사를 하며 계속하여 찬양의 시간을 통해 친교의 시간도 갖게 되며 풍성한 선물도 함께 준비되어 즐겁게 주안에서 한 형제 됨을 감사하는 시간으로 준비될 예정이다.

남선교회 연합 총회 장소는 8층 만나 홀로 정해졌으며 오후 6시에 한자리에 모여 식 각 선교회별 차기 임원선거를 위한 투표는 선교회별로 지정된 장소로 이동하여 치르게 된다.

## 국군장병들과 함께 드리는 찬양예배

### -2020 후원부대 기독 장병과 함께, 예배 후 격려의 밤 행사도 가져-

2020년까지 전국민의 75%를 복음화하고 국군 장병들을 복음 안에서 강건케 하기 위해 비전2020위원회(본부장: 이병생 장로)를 결성 국군장병들을 후원하고 있는 우리 교회는 오늘 찬양예배를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부대의 군목과 장병을 초청하여 함께 드리기로 하였다.

국군장병들은 찬양예배시간 전 목양실에서 이종운 위임목사와 대담의 시간과 대학·청년부를 방문 교제의 시간을 갖는다. 또한 찬양예배 후 8층 만나 홀에서 군장병들과 우리 교회 후원자들이 한자리에서 기도하며 격려하는 격려-후원의 밤 행사도 갖게 된다.

교회는 후원자된 성도들이 따뜻한 격려의 마음으로 국군 장병들과 함께 찬양예배도 드리고 격려의 밤 행사도 함께 드리도록 초청하며 이들을 통해 많은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기도한다.

## 태신자를 부르신다

### 17일 주일 I II III부 예배 태신자와 함께 드려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지금까지 가슴에 품고 기도해온 태신자를 초청하여 복음을 전하여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기 위해 17일(주) I II III부 예배를 태신자와 함께 드리는 예배로 정하고 태신자를 초청한다.

초청 대상은 현재까지 성도와 70인 전도대를 통해 접수된 태신자 전원과 그외 초청키로 작성한 모든 이들이다. 초청 당일 교회는 참성한 태신자들에게 귀한 선물과 꽃을 함께 증정한다. 이 자리를 통해 우리의 이웃과 친지들이 구원받아 하나되는 은혜를 누리도록 기도한다.

## 추수감사 찬양예배

### 11월17일(주) 찬양예배시

우리교회는 추수감사 찬양예배를 다음 주일인 17일(주) 찬양예배시간에 드리게 된다. 올해 추수감사 찬양예배는 임마누엘 찬양대(대장: 임상헌 장로 지휘: 박경자 집사)가 준비하며 타이틀을 시편 23편의 밤으로 정하여 시편 23편을 텍스트로 작곡된 총 스물 다섯 편의 곡 중 주옥같은 아홉 곡을 뽑아서 올린다. 모든 성도가 찬양으로 함께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이 되도록 기도한다.

## 사명자 대회 50일 연속기도회

날짜	교구명
11월11일(월)	14 교구
11월12일(화)	1 교구
11월13일(수)	7 교구
11월14일(목)	3 교구
11월15일(금)	4 교구
11월16일(토)	5, 13교구
11월17일(주일)	주일예배

### 금주의 성구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오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고후5:20)

We are therefore Christ's ambassadors, as though God were making his appeal through us. We implore you on Christ's behalf: Be reconciled to God. (2 Corinthians 5:20)

# 하나님을 잊은 죄

## (호세아 8장 1 - 14절)



이중운 목사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일을 행해야 합니다. 비록 시간이 걸린다고 해도 우리는 주님의 허락을 받고 행동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육체를 따라 낳은 이스마엘로 인해서 오늘날까지 수많은 이스라엘 족속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패한 것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도 사울 못지 않은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은 그가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물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묻지 않고 행한 일은 성공했다고 해도 축복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은 주님이 아시는 바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 묻는 것과 허락을 받는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기도는 했지만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행하는 일을 하나님은 모른다고 하십니다. 묻는 것은 통고와 달리 상대방의 허락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하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바울이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으셨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께 그 길을 묻고 행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일을 행해야 합니다. 비록 시간이 걸린다고 해도 우리는 주님의 허락을 받고 행동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육체를 따라 낳은 이스마엘로 인해서 오늘날까지 수많은 이스라엘 족속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 3.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지 않는 일은 하나님이 모르시는 바다

하나님께 묻고 허락을 받아 행한다 할지라도 인간적인 방법대로 일을 행한다면 하나님은 그 일을 모른다고 하십니다. 목표가 정확하게 세워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정 또한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할 때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를 보십니다. 성공하는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선을 다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보시면 그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세속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면 무슨 소용입니까? 주님을 위한다는 미명하에 비성경적인 방법으로 어떤 일을 이룰 때 하나님은 그것을 모른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도우시고 열납 받으실 일을 해야 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을 무시하는 사

람이요, 바람을 심고 광풍을 얻는 사람처럼 결국은 망하게 될 것입니다.

### 4. 우상을 섬기는 사람

"그들이 또 그 은,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4절).

우리는 우상을 섬기지 않노라고 하지만 누구나 자기 우상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자기의 자존심을 조금이라고 건드리면 하나님도, 교회도, 직분도 쾡개칩니다.

"사마리아여 네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5절).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후로 이스라엘은 253년간 18명의 왕이 모함이나 반란에 의해서 바뀌었습니다.

송아지는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입니다. 애굽에서 수소는 오시리스 신에게 바쳤고, 암소는 이시스 신에게 바쳤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미워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에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8절).

이스라엘을 지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기들에게도 이웃 나라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결국 이웃나라와 화친조약을 맺고 동맹군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는 이웃나라와 합력하는 것을 아주 미워하셨습니다. 성경은 혼음하는 것을 금했습니다. 혼음은 혼잡주의로서 다른 신앙을 융합하는 일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 마음과 한 몸을 이루어야 합니다.

### 5. 거짓으로 쌓은 제단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11절).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에 제단을 하나만 쌓으면 됩니다(신 12:5). 그런데 그들은 여기 저기에 제단을 세웠고 그것들 중 대부분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14절).

이스라엘이 지은 이 다섯 가지 죄는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제마음대로 행했으므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자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호세아서 8장에는 두 가지 잠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7절).

인간이 모든 노력을 기울였으나 얻은 것은 멸망을 자초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인간은 노력이 허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잊어버린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마지막에 얻는 것은 멸망뿐입니다.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7절).

심기는 심었는데 줄기가 없습니다. 이삭은 있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혹시 열매를 맺어도 자기가 먹지 못합니다. 힘을 쏟고 노력을 했으나 거둘 것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14절).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에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심과 지금도 우주를 섭리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은 멸망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급한 환경이 닥치거나, 혹은 어려운 결단의 순간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14절의 잊어버린다는 영어성경에는 forget이라고 번역했지만 실제로는 regret, 부인하다는 것이 더 옳을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행동하고, 판단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다섯 가지 벌을 주십니다.

### 1. 계약 파기

"나팔을 네 입에 뿜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라"(1절).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사람의 집에는 위험이 닥칩니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며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2절).

그들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이 자신을 알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모른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혼자서만 사랑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3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고 그를 따르는 선한 일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그를 덮쳐서 그들의 삶을 조종합니다.

### 2. 허락 받지 않고 행하는 일은 하나님이 모르시는 바다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4절).

이스라엘이 세운 왕을 하나님은 모른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 일을 모른다고 하십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일어섬을 모르실리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모르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며 인간의 마음을 조형하시고 섭리하십니다.

주님께 묻지 않고 한 일은 주님이 모르시는 바입니다.

# -22학기 학사보고- 22학기 목회자 세미나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민순구 장로**  
(목회자 신학세미나 학감)

지난 2002년 9월2일부터 11월4일까지 10주간동안 '신앙과 애국'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1교시는 본 연구원 원장이신 이종운 목사님의 '시편연구'를 통하여 큰 도전과 은혜를 받았고, 2교시에는 열 분의 강사님들을 통하여 새 천년 시대를 맞이하여 변치 않는 영원한 진리를 만나는 지혜와 지식의 보고를 함께 나누고 연구하였던 제22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를 은혜 중에 마치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교회 부설 한국교회갱신 연구원의 목회자 신학세미나는 1992년 3월 강좌를 개설한 이래 교파를 초월하여 전국의 목회자들에게 계속적인 말씀 공부와 신학적 지식 습득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소명의식을 고취시키고 지도력을 개발하게 하는 등 한국 교회의 목회방향을 새롭게 조명하고 학기제 세미나를 정착시키며 매년 수강자가 연인원 일 만 명에 이르는 목회자를 위한 영성 개발과 성장은

물론 목회현장에 적용 가능한 실용적인 지식을 제공하는 국내의 대표적인 최고 수준의 신학교육의 장으로서 인정 받고 있습니다.

더욱이 금번 22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에서는 대통령 후보 3인을 초청하여 각 후보자들의 60분간의 강연과 30분간의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대통령 후보로 나서는 그들의 국가관은 물론 한국교회의 현안에 대한 견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흔치않은 귀한 시간이 되었음을 또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학기에 세미나를 수강한 수강인원은 매주 평균 450여명이며 이 중 40명이 4학기를 이수하여 수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시편 연구를 통해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 본원 원장 되시는 이종운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매주 맡으신 강의를 충실하게 해주신 모든 강사

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월요일마다 주일 이후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동서남북 원근 각처에서 참석하여 세미나를 더욱 열기로 가득 차게 하고 열심히 수강해 주신 모든 교역자 여러분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새벽마다 음식을 준비하신 권사님들, 집사님들 생업을 일시 중단하고 온종일 보이게 보이지 않게 기쁨과 감사와 믿음으로 열심히 봉사를 해주신 서울교회 봉사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에 학사보고를 마칩니다.

2002.11. 4



## 2002년 전교인 성경암송대회 성도들의 참여 확대와 말씀의 생활화 -내년에는 골로새서를-

우리교회는 1996년 교회 창립 5주년을 기념해 전 교인이 참여하는 성경암송대회를 개최한 이래 매년 빠짐없이 성경암송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많은 이들이 주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되새기므로써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숨쉬도록 하는 계기가 되고 이로 인해 올바른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훈련이 되며 이외에도 여러 측면에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와 함께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뜨거운 열기 속에 매년 대회가 열리고 있다. 이 같은 우리 성도들의 성경 암송 열기는 서울교회의 자랑거리로서 아름다운 전통이 되어 가고 있음에 틀림없다.



올해에도 지난 11월 1일 (금) 2002년 전교인 성경암송대회가 열려 유치부에서 장년부까지 각 부서의 예선을 통과한 부서별 대표들의 열띤 경쟁이 있었다. 한치의 실수도 없이 요한2,3서와 유다서를 암송하는 참가자들의 모습은 이를 지켜 보던 모든 성도들에게 절로 탄성을 자아내기에 충분하였고 감동과 새로운 도전이 되었다.

특히 올해의 성경암송대회는 예년에 비해 성도들의 참여 확대와 대회의 발전을 위한 기반이 조성되었다는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 주목된다.

우선 영어성경반의 유치,유년부 어린이들은 물론 청년부 커플의 유창한 영어 암송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장년부 최우수상을 수상한 이영숙선사의 경우 우리 한국어로는 물론 영어로도 완벽하게 암송을 해내는 기쁨을 토하는 등 영어 암송자들의 대거 참여는 대회를 좀 더 다채로운 행사로 만들었으며 많은 성도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키는 성과가 있었다는 평가다.

장년부 남성도들의 두드러진 약진도 화제가 되고 있다.

학생이나 여성도들이 강세를 보이던 예년에 비해 바쁜 직장 생활의 와중에도 말씀을 암송하여 상위에 입상한 장년부 남성도들로 인해 생업에 바쁘다는 이유로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한다는 것은 적어도 우리 교회에선 설득력이 떨어지게 되고 만 것이다.

또 6교구의 6-7 다락방 식구 네 명이 함께 참여하여 이들도 특별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다락방 식구들이 모여 함께 성경암송을 하는 동안 다락방이 더욱 화목해지고 가까워지는 은혜에 감사할 뿐이랴던 이들의 수상은 그간 부서별로 개인 참가자가 주류를 이루었던 이전까지의 대회들에 비해 다락방은 물론 선교회나 전도회등의 단체 참가자들의 참여의 길을 여는 계기가 되어 그 의미가 남다르다.

별써부터 내년 대회를 기약하는 이들은 물론 이번 대회를 방청하며 동기 부여를 받고 내년 대회의 참가를 다짐하는 이들도 있다고 하니 이래저래 내년에는 더욱 늘어날 참가자들과 암송 수준의 향상으로 인해 시상이나 심사등 대회 운영 전반에 걸쳐 성도들의 열기를 수용하는데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는 과제를 안게 된 대회관계자들은 바빠 질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내년 암송범위는 골로새서 전장이 다.

성경암송은 우리 삶의 양식인 말씀을 생활화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며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암송하고 매일 이를 묵상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또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성경적이 되는 것은 아닐까?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들 신앙 열기의 뜨거운 열정이 확인된 2002년 전교인 성경암송대회는 분명 성공적이었다. 편집부

## 시편 23편으로 드리는 감사의 찬양

박경자 집사 (임마누엘 찬양대 지휘자)

감격으로 찬탄하던 광화문 거리의 붉은 함성은 그 언제였던가, 기억 속에 묻혀버리고 지난여름 엄청난 수해로 신음하던 산하에 또 가을이 찾아들었다.

이번 추수감사절 절기연주회를 마련하며 지난 한 해를 돌아보니 그때마다 고비마다 물어나던 우리 주님의 은혜가 새삼 마음에 사무친다. 십 대에서 육십 대까지 구성된 임마누엘 찬양대의 특성 때문에 연습시간은 부족했고, 주님께는 늘 송구스러웠던 기억이 크다.

주일 오후 연습으로 모이는 대원의 수는 항상 서른 명이 되지 않았다. 주님이 좋고 찬양도 좋아 열정 하나로만 모였으니 모든것이 태부족이었다. 한 주의 총 연습시간 1시간 30분으로 버텨온 지난 일년, 숨가쁘게 지나온 시간이었다. 이 대목에 이르니, 잘 왔다는 안도감인지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인지 까닭 없이 눈물이 솟구친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할 것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습시간에는 늘 웃음이 넘쳤고, 찬양하는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으로 인해 기뻐하신다는 자긍심을 맛보았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가 약하니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하여 임마누엘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번 연주회는 그간의 인도하심에 감사드리며, 찬양함으로 영광을 돌리자는 취지에서 <시편 23편의 밤>을 마련하였다.

시편 23편을 텍스트로 작곡된 총 스물 다섯 편의 곡들을 수집하고, 그중 주옥같은 아홉 곡을 뽑아서 올리게 되었다. (Hydn, Don Besig, Everett Titcomb, Michael Cox, Allem Pote, Shelly, 장순일, 나운영, 김성기 곡)

이를 위해, 찬양대는 십 여 차례의 총연습 일정에 들어갔으며, 연습이 거듭될 때마다 감사와 기쁨이 증폭됨을 느끼고 있다. 이 열기가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전달되어 영육간에 풍성한 가을결실이 이루어지길 기원해 본다.

### 은혜 속에서 성경암송대회를 마치고

#### 김명철 성도 (영어성경반)

11월 1일 금요일 저녁 7시에 교회에서 전교인 성경암송대회가 있었다. 비록 한달 가까운 기간을 두고 준비를 해왔지만 막상 대회를 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떨려왔다. 우리는 교회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 한 소절씩 주고받으며 외웠다. 지금 생각하면 옆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영어로 무언가를 중얼거리는 우리를 쳐다보며 이상하게 생각했을 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워낙 급한 터라 주위 사람들의 그런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열심히 외웠다.

7시부터 간단한 예배를 드린 후 암송 대회가 시작되었다. 우리는 요한2서, 3서, 유다서를 차례대로 외워나갔다. 요한 2,3서는 내용이 비교적 짧아서 둘이서 한 목소리로 암송하였고, 유다서는 25절인 관계로 한 절씩 주고 받으면서 암송하였다. 두 사람이 같이 외우고 또한 영어로 암송을 했기 때문에 외우는 과정에서 약간 입이 맞지 않거나 실수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암송을 하는 그 순간에는 정말 내가 사도바울이 되어서 말씀을 전파하는 그런 기분과 확신을 가지고 암송을 하였다. 또한 주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암송을 하였다. 다행히 몇 가지의 실수만 제외하고는 암송을 무사히 마쳤다. 정말 큰 실수 없이 무사히 암송을 마쳐서 너무 기쁘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우리에게 화복상이라는 큰 상을 내려주셨다. 성경암송을 하는 것만으로도 큰 은혜였는데 이렇게 상까지 받으니 감사한 마음이 더욱 샘솟는 것 같았다.

처음에는 잘 외워지지가 않고 자꾸 잊어버리고 해서 너무 실망스러웠지만 다행히 여자친구 지원이가 같이 암송을 시작해서 큰 힘을 얻었고 오히려 더 열심히 암송을 하는 모습에 너무 큰 감동을 받았다. 또한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지던 그 말씀들이 자꾸 반복해서 암송을 하니 그 안에 숨어 있던 깊은 뜻을 더 잘 이해하고 느낄 수가 있었다. 그리고 항상 암송구절이 적힌 종이를 어디서나 읽고 외우면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었다. 더불어 영어로 성경 말씀을 외우다 보니 영어 공부도 절로 되었던 것 같았다.

이제 올해 성경암송대회는 끝났고 내년도 대회의 암송 범위가 주워졌다. 비록 한 절을 외우더라도 하고자 하는 열성과 믿음만 있다면 누구든 참가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같이 누렸으면 하는 것이 이번 암송대회를 참여하면서 느낀 나의 작은 바람이다.

### 몽골 단기선교팀 기도회를 가지고서

#### 최영열 집사(2교구)

푸르고 푸른 복음을 들고 횡랑하고 메마른 땅 몽골에 복음을 전파하고 온지 두 달만에 우리는 다시 기도하기 위하여 모였다. 흠어져 교회의 구석구석에서 기도와 전도의 삶을 산 우리들은 다시 그 열정을 가지고 모인 것이다.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규정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몽골에서 흘린 땀과 정성을 생각하며 모두 하나가 됨을 느꼈다. 또 그동안 단원들이 정리한 몽골선교보고서를 한 권으로 엮은 "몽골선교보고서"를 보면서 소감과 결심의 시간의 시간을 자, 손녀들에게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너무 감사해서 작정한 40일이 지나고도 철야기도를 계속했습니다. 제가 철야를 한다고 하니 혼자서는 엄두가 안 났었다며 철야 기도를 하시는 분이 하나, 둘 늘어나고 가끔은 다른 교회 교인들도 오시는데 그분들이 기도하다가 한 마디라도 우리 서울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다고 생각하면 감사하기만 합니다.

젊어서 시집살이에 아이들 치다꺼리에 교회를 열심히 섬기지 못한 것이 지금도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모습을 보면 대견스럽기만 합니다.

사명자대회 기간 동안 기도하는 분들이 더욱 많아져서 마음이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비록 기도하는 이 노인의 입술이 둔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보다 더 많이 알아 들으실 것입니다.

날씨가 춥다고, 비가 온다고, 감기가 들었다고 아이들은 곤잘 "오늘은 제발 쉬세요"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기에 기도를 하는 것인데 내가 내 건강을 지키기 위해 기도를 된다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아 저는 오늘도 미련한 발걸음을 교회로 옮깁니다. 부디 기도의 동역자들이 많아져 이 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가졌다. 몽골은 여름에 사람들이 휴가와 일들로 시골이나 여행을 가기 때문에 예배에 사람들이 적게 모이지만 9월과 함께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일터로 다시 돌아오면서 교회도 자리가 잡히게 된다. 단기선교팀의 기도와 선교활동 결과 매주 100여명 이상이 모여서 자리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한다. 특히 수요일 예배에 7-80명 정도가 참석을 하여서 무척 감사하다고. 중등부는 거의 배로 증가하여 약 80여명이 출석하며 단기선교팀이 보내 준 빔 프로젝트를 비디오, 오디오 세트들로 영화를 상영하는 것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한다.

알탕얼기 지역에 교회 건축은 현재 정식 전기는 아니지만 연결을 하였고, 내년 봄에는 나무 집을 지을 계획이라고 한다. "예배 서식서"와 "52주 구역공과" 책 2권을 출판하여서 신학교에 150권 비치하고 몽골 교역자들에게는 무료로 한 권씩 배부하였으며 "세레문답집"은 우리 총회에서 나온 것을 번역하여 11월중에 출판 예정이다. 또한 성경구절소책자도 제작 중이라고 한다. 몽골에서는 매년 한번씩 종교법에 의해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큰 교회 몇 개만 두고 작은 교회들은 갹신 허가를 주지 않고 정리하겠다는 말이 있다고 하니 성도들의 기도를 부탁드린다.

1. 아멘교회 건축 문제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2. 찬양팀 1진과 2진 모두 양육될 수 있도록
  3. 부흥한 중등부가 자리를 잡아서 좋은 일꾼들로 배출될 수 있도록
  4. 내년에는 교회 개척지 물색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찾고 있는 중입니다. 복음이 꼭 필요한 지역으로 인도 받을 수 있도록
  5. 한국어 영어 컴퓨터 강좌가 잘 진행되어서 좋은 일꾼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6. 몽골 교회들을 위하여 - 갈보리교회 올즈보이 전도시임을 위하여.
- 이 모든 일에 선교에 헌신자들이 많이 생겨나게 하소서!

#### 동정

- 이종윤 목사는 12일 이화여대 기독교학과 대학원 체플에서 설교한다. 14일 숭실대에서 특강과 체플 설교를 한다.
- 이성근 집사(10교구) - 2002대한민국 광고대상에서 '대상' 수상 11월12일 시상
- 이사: 이기원 집사(8교구로) 강북구 미아동 벽산apt 116-303 983-3140  
김성준 집사, 김선영 집사 가정 (12교구로) 031-287-2962

◎ 금주의 식사제공: 김재성 집사, 유순섭 집사가장 (자녀 결혼을 마치고)

####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98.1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 기독교방송(HLKX 1188KHz) 생명의 빛으로 금요일 오전 8시 10분 ~ 8시 40분
- 인터넷방송 (· C3 TV - <http://c3tv.co.kr> · 호산나넷 - <http://hosanna.tv>)

### 깊어 가는 기도의 계절

#### 나옥녀 권사(11교구)

오늘도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집을 나서니 겨울 못지 않은 매서운 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합니다.

손자의 유학 문제로 교회에서 철야를 시작하지 벌써 2년이 넘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을 줄 알았던 손자의 미국 비자가 나오지 않자 저는 40일을 작정하고 온전한 철야를 시작했습니다. 손자를 위해 할머니가 할 것이 기도밖에 무엇이겠습니까? 철야를 하는 동안 또 한 번 비자가 떨어졌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때 머느리는 볼멘소리로 "어머니 이번 학기에는 포기해야 될 것 같아요 기도 그만 하세요"라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빙그레 웃기만 했습니다. "철야는 그만, 비자가 안왔다고 작정한 기도를 그만 두라.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지." 그리고 얼마 안되어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비자가 나왔어요. 어머니의 기도가 하늘 문을 여셨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하지만 모두들 세 번째 비자가 나온 것은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 기도로 하늘 문을 열었다는 머느리의 말이 그렇게 감사했습니다. 나는 자녀들에게 부족하나마 기도하는 어머니로 기억되기를 바라고 그들 또한 나의 손

### 서울 주간기도

####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2002 사명자 대회를 위하여
2. 연말 연시를 보람차고 아름답게 보낼 수 있도록
3. 병상에 있는 환자들, 입시생, 실직자, 소외된 자들을 위하여
4. 연말 대통령 선거를 위하여

####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 예배	I 부 오전 9시
	II 부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오후 2시
찬양 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 부 오전 11시
	II 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30분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 교회약도 :

